



# '97 하계 · 추계 학술대회를 마치고 나서

신명철\*

(\*성균관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1997년도 한해의 학술분야 활동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에 걸맞는 학술활동이 이루어졌을가를 생각하며 그 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고충을 이야기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돋보이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하계학술대회 개최예정지인 무주리조트를 답사하고 처음부터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97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예정지로 '96년도에 내정되었으나 세계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명성때문인지 학술발표 회의장 사용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숙박료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높았다. 부득이 이사회의 논의 끝에 '96년도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용평리조트로 변경해놓고 여러가지 걱정이 앞섰다. 발표논문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회원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며 용평리조트를 답사하고 회의장 확보가 '96년도 보다 유리했고, 모든 가격도 '96년도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어서 다소 위안이 되었다.

학회의 학술활동은 회원들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회 창립 50주년을 모든 분야에서 돋보이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0주년 로고와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를 각 연구회 논문집의 표지에 수록하기로 하고 연구회 지원금도 인상하였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중 우수논문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논문 추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50주년 기념사업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친목의 밤"과 "사진 전시회"를 병행하여 계획하고 하계학술대

회를 맞이하였다. 그 결과 회원 1,300명이 참여하고 801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1,700여명이 집결된 화기에애하고 활기넘치는 하계학술대회가 되었다. 더불어 발표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우수논문 추천제도 성공적이어서 하계학술대회에서 57편, 추계학술대회에서 27편이 추천되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와같은 우수논문 추천제는 향후 각 연구회의 발표논문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기총회를 겸한 추계학술대회에서도 IEEE의 Charles R. Alexander회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준비하였고, 201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는 알찬행사로 학회창립 50주년이 되는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학술행사가 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지나치게 양적인 팽창을 추구한 나머지 다소는 사치스런 레저형 하계학술대회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나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올해의 학술활동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학술적이고 진보적인 학술대회를 기대한다. 그리고 각 연구회에서도 학술위원회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춘, 추계 학술발표회의 논문지에 50주년 기념로고와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를 수록하여 모든 회원들이 대한전기학회가 창립된지 50주년이 되었다는 감격을 1년 내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점차 발전되어가는 대한전기학회의 학술활동을 기대하며 1997년도 한해의 학술활동을 되돌아 보았다.